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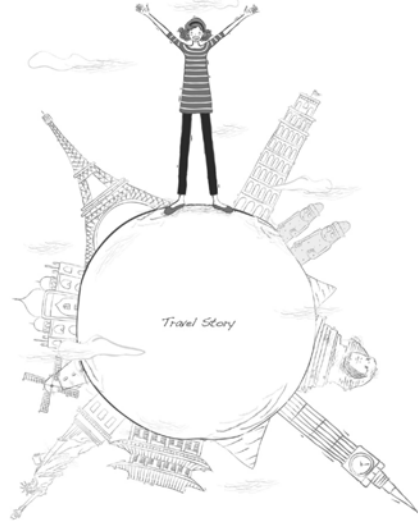


이야기가 있는 회계여행

공공조직의 회계책임과 사회적 신뢰

안세회계법인 이사

고영일



공공조직이 회계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임과 동시에 조직의 존속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재정건전성 등 유용한 재정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재정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중앙정부 및 기금은 2009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전면 도입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다행스럽다.

우리 몸 속의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온 몸 곳곳에 전달하고 우리 몸 곳곳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외부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신장이나 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보는 조직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유대를 맺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피’의 역할을 담당한다. 회계는 ‘특정의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financial information)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를 말한다. 회계는 재무적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역할, 즉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회계라는 말 대신 재무보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흔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하는 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 ‘한국채택국제재무보고기준’이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재무정보의 이용자는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기타의 정보이용자로 구분될 수 있으나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가계, 기업, 국민전체가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공공조직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재무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조직의 재무적 정보를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재무정보는 이를 생성하는 조직 구성원의 성실함과 능력에 따라 그 품질과 신뢰성이 매우 크게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공공조직의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그 투명성 및 신뢰도에 대한 기대도 별로 높지 않은 것 같다.

재무정보는 어떤 조직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의 경제적 상황을 화폐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 무역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것처럼 조직에서 회계라는 언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면 경제적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회계를 중요시 하지 않는 것 같고 회계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비영리법인이건 영리법인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건 간에 조직의 정보의 흐름을 반영하는 회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재무정보 또는 회계정보가 조직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유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용한 재무정보란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의미한다.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목적적합성보다는 신뢰성이 더 중요한 가치이며 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충실성, 둘째 검증가능성, 셋째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맞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것이며, 필요한 중요 정보가 누락되지 않게 완전하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검증가능한 정보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여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이 많이 나거나 자산이 많은 것처럼 나타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재무정보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보는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투명하고 충분한 재무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중고차시장 파라독스 또는 레몬시장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차의 성능과 과거의 주행상태, 사고여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딜러는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구매자에게 잘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차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차를 파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형성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차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먼저 자신이 운전하는 차의 성능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하지 않으려 한다. 예를 들어 97년식 쏘나타의 시장가격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 자신의 차가 이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불리 매도하지 않는다. 잘해야 300만원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는 좋은 차가 공급되지 못하고 가치가 300만원 이하인 저급 승용차만 등장한다. 그 시장에 나온 차의 실제 품질은 300만원과 0원 사이에서 분포하므로, 평균 거래가격은 300만원보다 훨씬 낮게 형성된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중고차 시장에 공급되는 승용차의 품질은 더 떨어지게 된다. 재무정보가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도 이러한 중고차시장 파라독스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만한 재무정보, 즉 고품질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재무정보 공급사슬을 잘 관리함으로써 가능하다.

공급사슬이란, 일반 기업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 즉 자재의 구입, 생산, 운송 및 보관, 판매 등 재화의 흐름을 의미한다. 공급사슬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즉 자재공급자, 운송업자, 소매상 등을 공급사슬의 구성요소로 보아 이들 공급사슬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을 기업의 재무정보의 흐름에 적용한 것이 재무정보공급사슬이다.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보공급사슬 단계를 거쳐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거래의 발생원천→ 정보의 처리(프로세스)→ 정보의 집계→ 통제→ 검증→ 이용자에 대한 보고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고품질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공급사슬의 모든 단계가 충실하고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단지 회계부서에서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만 잘 작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먼저 차량 구입과 관련된 내부 승인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즉, 내부 규정에 따라 품의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승인권자가 이를 승인하는 통제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입된 차량에 대한 물리적인 검수과정이 있어야 하고, 자산 등록 및 이에 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적절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업무로테이션, 주기적 실사, 조회 및 거래처 방문, 내부감사, 모니터링 등의 내부통제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상장법인이나 대규모 기업 및 공공조직들은 공표용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의 감사를 받는다. 만약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만약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을 판매한 딜러가 정직하지 못하여 200만원이라고 속여 차를 판매하였다고 하자. 200만원에 차량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차량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면 재무제표상 자산의 가치는 100만원만큼 과대 계상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입처와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등 차량 구입처 선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반대로, 차량의 공정가치가 200만원인 경우 대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출납직원이 이를 착복하고 차량 공급처에 송금하지 않았다면, 재무제표에는 부채가 200만원만큼 적게 계상될 것이다. 그리고 회계직원이 회계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또 그만큼 이익과 자산이 더 많이 계상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신뢰할 만하고 충실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가 발생하는 모든 거래 원천부터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내부통제라고 한다.

인간은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특히 경제활동을 하면서부터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에 칼데아, 바빌로니아 및 앗시리아의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와 상업기록을 남겨 놓았다.

15세기 이탈리아의 베니스 상인으로서, 현재의 회계처리방법 즉 복식부기에 대한 최초의 문헌을 남긴 Luca Paciolo 는 회계의 기법과 더불어 회계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Paciolo는 ‘기록이라는 질서가 없는 곳에는 혼란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세 이탈리아의 상인들은 재산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관리하고 기장한다는 의미에서 장부의 앞부분에 십자가 표시를 하였고 정확하지 않은 장부는 ‘불편과 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부기의 목적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안정을 위한 것’ 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회계가 태동할 당시에는 회계의 윤리적인 측면이 매우 강조되었고 회계와 윤리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다.

상업이 발달하고 주식회사가 생기고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면서 경영자가 수탁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

계책임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수탁책임을 대리인 책무라고도 한다. 만약 회사가 상장된 경우라면 경영자의 대리인 책무는 현재의 주주뿐 아니라 미래의 주주 및 일반대중에 대한 책무로까지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회계책임이 일반대중 및 미래세대에 대해서까지 확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공조직의 회계책임은 공적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수탁책임 또는 대리인 책무로 인해 회계는 윤리적인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된다. 회계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올바르게 기록하고 보고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모든 회계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활동의 올바른 기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부정부패도 장부의 변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계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